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우지명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파견 학기	2019학년도 1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GTU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교 1학년때 룸메이트 형이 리투아니아에 갔다온 뒤 저에게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서 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외국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저는 더욱 더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학교에서 좋은 기회도 있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는 리투아니아에서 필요한 비자발급 관련 서류들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보험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들어서 가도 좋지만 리투아니아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가시고 만약 실패하셔도 리투아니아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가격에 다시 가입할 수 있고 비자 발급받는 장소에서 보험 발급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공권은 키세스 항공에서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플랫폼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 외국인들과 더욱 더 어울리고 한국인들과도 같이 놀고 싶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훨씬 더 가격도 쌉니다. 수강신청은 우리 학교에서 먼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파견학교에서 과목 변경도 가능하고 정보도 그쪽이 더 많으니 본교에서는 틀만 잡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리투아니아는 우리나라의 타 대학과는 다르게 학부마다 건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같은 경우는 변덕이 워낙 심한데다가 5월에도 눈이 내립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듣긴 하였으나 제가 있던 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아서 고생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르니 두꺼운 옷이나 부츠는 챙겨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게 될 텐데 버스는 일정 금액을 우리나라 매표소 같이 생긴곳에 지불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게 되실때도 Taxif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면 적정가정에 가능하니 절대 길거리에서 잡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제법 프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탁구나 배드민턴 혹은 다이어트 비슷한 수업도 있으나 도합 20번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fail이니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한 달에 150유로에 보증금 300유로로 되어있으나 도중에 한 달에 104유로 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화장실과 샤워실을 4명이 공유한다는 것과 조리실을 한 층의 사람 전부와 공유합니다. 그러나 가구가 전부 최신이고 엘리베이터도 구비되어있으며 보안이 철저하니 불편하시면 그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라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식비가 많이 나옵니다. 먹는 걸 싸게 드시고 술 많이 안 드시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고 주변 한국인들도 아무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헬스 좋아하시는 분이면 학교 헬스 시설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버스타고 10~15분 거리에 굉장히 싸고 괜찮은 가격의 시설이 있으니 그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식당가서 물 돈 주고 사야한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들 외국인 친구 사귀고 경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말 걸면 다들 친절하게 해주니까 겁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나라가 작고 놀 수 있는 곳이 한국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안 친해지면 재미없는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서 말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친해지려는 많은 노력 끝에 회화능력도 상당히 늘었고 가장 중요한 자신감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